

## 研究史 및 資料

### 韓國 《史記》 研究 論著 目錄(1)

- 《사기》 연구서 목록(1971~2022) -

제 해 성\*

<目次>

I. 머리말	2. 學術 研究書
II. 《史記》 研究書 目錄	3. 一般 教養書
1. 原典 翻譯書	III. 맺음말

### I. 머리말

《史記》는 기원전 1세기경 중국 前漢의 太史令 司馬遷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正史이다. 五帝부터 漢 武帝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의 중국 역사와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고전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는 현대인의 흥미를 끌 뿐 아니라, 紀傳體라는 새로운 역사서술 방법을 창안하여 역사서의 동양적인 원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저자 사마천은 宮刑이라는 치욕적인 거세 형벌을 받아 입은 상처와 이로 인한 불효자의 오명을 벗기 위해 부친의 유언인 《사기》의 완성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일대 장편 서사시를 탄생시켰다. 전체

\* 계명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130권의 방대한 역사 기록 속에는 그의 인간주의적인 인생관과 역사관에 의한 인간세계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사마천은 친구 任安에게 보낸 편지 〈報任少卿書〉에서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사서를 편찬한 목적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구명하고 고금의 변화를 관통하는 원리를 밝혀 스스로 독자적인 이론과 체계를 이루려는 것(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히 의견을 내세웠으며, 자신의 어려운 현실과 율분 및 하늘에 대한 의구심을 역사서술로 해결하였다. 사마천은 단지 현실 속에서의 굴욕에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서술이 미래에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였다. 그 결과 궁형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고 發憤하여 중국인 최초로 정사를 저술한 위대한 역사가로 청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처럼 《사기》는 당대의 역사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겠다는 역사가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충만한 사마천이 남긴 불후의 명작이다.

《사기》가 세상에 나온 지 약 2,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 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의 지식인들에게 고전으로 평가받아 많이 읽히고 또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관련 학회의 요청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국과 대만 학계에 한국의 《사기》 연구 현황을 소개<sup>1)</sup>한 바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관련 연구성과를 추가 수집 정리하여 197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논저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중에서 ‘上篇’에 해당하는 ‘《사기》 연구서 목록’ 중심의 본 ‘연구사 및 자료’가 국내외의 관련 연구자에게 다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1) 〈《史記》在韓國的流傳及影響——以翻譯介紹與研究現狀爲中心〉, 《漢學研究通訊》(臺灣國家圖書館 漢學研究中心) 第23卷 第4期(總號 第92期), 2004. 〈近四十年來韓國《史記》研究綜述(1971~2010)〉, 《唐都學刊》(西安文理學院) 第27卷 第5期(總號 第125期), 2011. 〈韓國《史記》《漢書》翻譯現狀的概括與評價〉, 《國際儒學研究通訊》(北京: 三聯書店) 創刊號, 2015.

## II. 《史記》 研究書 目錄

1971년부터 2022년까지 5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사기》 연구서를 크게 ‘원전 번역서’, ‘학술 연구서’, ‘일반 교양서’ 세 종류로 나누고, 저자(역자), 《서명》, 출판지역명: 출판사, 연도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原典 翻譯書

196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史記》 ‘列傳’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史記列傳》이 한학자 최인옥에 의해서 현암사(서울)에서 출판되었다. 10년 후 이 책 내용의 기초 위에서 역자는 《사기》 저술가 김영수와 공동으로 수정 보완한 《史記列傳》(총 2권)을 동서문화사(서울)에서 출판(1975)하였으며, 30여 년 후 재판을 신원문화사(서울)에서 출판(2006)하였다.

이영무는 일본의 미루야마 마츠유키(丸山松幸)와 모리야 히로시(守屋洋) 등이 편역한 《史記》(총 5권)<sup>2)</sup>를 重譯한 《불멸의 인간학: 〈史記〉》(총 6권)을 신태양사(서울)에서 출판(1973)하였으며, 12년 후 재판을 소설문학사(서울)에서 출판(1985)하였다. 또 24년 후, 《패자의 조건》, 《난세의 군상》, 《독재의 허실》, 《역전의 역학》, 《권력의 구조》(총 5권)라는 일본 원서와 같은 서명으로 서해문집(과주)에서 출판(2009)하였다. 이 重譯本은 완전한 원전 번역서가 아니지만, 사마천의 《사기》를 이룬 시기에 국내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市川宏·杉本達夫 共譯, 《史記(1): 覇者の條件》; 丸山松幸·和田武司 共譯, 《史記(2): 亂世の群像》; 丸山松幸·守屋洋 共譯, 《史記(3): 獨裁の虛實》; 和田武司·山谷弘之 共譯, 《史記(4): 逆轉の力學》; 大石智良·丹羽隼兵 共譯, 《史記(5): 權力の構造》, 東京: 徳間書店(のち文庫).

중문학자 문선규가 번역한 《史記列傳》(총 3권)을 한국자유교육협회(서울)에서 1973, 1974, 1979년 연이어 출판하였으며, 6년 후 수정 재판을 삼경당(서울)에서 ‘세계고전전집’으로 출판(1985)하였다.

홍석보가 번역한 《史記列傳》을 삼성출판사(서울)에서 ‘세계사상전집’으로 출판(1977)하였으며, 17년 후 이 책 내용의 기초 위에서 역자는 소설가 김병총과 공동으로 소설형식을 빌려 총 10권의 《사기》 전서 번역본을 완성하여 집문당(서울)에서 출판(1994)하였다.

성원경이 역주한 《〈史記列傳〉要解》를 서광사(서울)에서 출판(1980)하였으며, 12년 후 이 책을 원문 대역 형식으로 수정하고 각 편의 해설을 보완한 《〈史記列傳〉精解》를 명문당(서울)에서 출판(1992)하였다.

이후에도 남만성이 역주한 《史記列傳》(총 2권)을 을유문화사(서울)에서 ‘세계사상전집’으로 출판(1983)하였으며, 이상옥이 역주한 《史記列傳》(총 3권)을 명문당(서울)에서 출판(1986)하였다. 이어서 사기열전강독회가 역주한 《故事〈史記列傳〉》(총 3권)을 청아출판사(서울)에서 출판(1988)하였고, 강영민이 역주한 《實錄〈史記列傳〉》을 창우출판사(서울)에서 출판(1991)하였으며, 권오현이 역주한 《史記列傳》을 일신서적(서울)에서 출판(1991)하였다. 1993년에는 최대림이 역주한 《史記本紀》와 《史記世家》, 소준섭이 편역한 《史記》(총 3권), 김진연이 편역한 《史記》(총 4권)를 연이어 출판하였으며, 중문학자 김원중이 역주한 《史記列傳》(총 2권)을 을유문화사(서울)에서 출판(1999)하였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중문학자 정범진 교수가 성균관대 대학원 중문학과 박사생들과 공동으로 《사기》 전서를 완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단 《史記本紀》(1권), 《史記表·書》(1권), 《史記世家》(2권), 《史記列傳》(3권) 총 7권을 도서출판까치(서울)에서 출판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김학선이 평역한 《史記》를 평단(서울)에서 출판(2003)하였고, 이영무가 번역한 《〈史記〉: 재미있게 풀어 쓴 중국 기원전 역사》(총 3권)를 범우사(과주)에서 출판(2003)하였으며, 김기주·황지원·이기훈이 공역한 《〈孔子世家〉·〈仲尼弟子列傳〉: 司馬遷 〈史記〉 속에 비친

공자와 그 제자들의 행적》을 예문서원(서울)에서 출판(2003)하였다.

이어서 중문학자 이인호는 《史記本紀》를 역주한 《〈史記〉: 신화의 시대에서 인간의 역사로, 〈本紀〉》를 사회평론(서울)에서 출판(2004)하였고, 《史記列傳》으로 새로 쓴 《〈史記列傳〉: 고전을 넘어선 고전 강의》를 천지인(서울)에서 출판(2009)하였다. 또한, 중국 延邊大學 古籍研究所에서 역주한 《史記列傳》을 서해문집(과주)에서 출판(2006)하였고, 김민수가 편역한 《史記列傳》을 평단문화사(서울)에서 출판(2008)하였으며, 임동석이 역주한 《史記列傳》을 동서문화사(서울)에서 출판(2008)하였다.

이 밖에도 필자가 추가로 조사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사기》 원전 번역서의 목록(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 제외)은 다음과 같다.

- 김원중, 《史記本紀》, 서울: 민음사, 2010.  
 \_\_\_\_\_, 《史記世家》, 서울: 민음사, 2010.  
 \_\_\_\_\_, 《史記表》, 서울: 민음사, 2011.  
 \_\_\_\_\_, 《史記書》, 서울: 민음사, 2011.  
 \_\_\_\_\_, 《〈史記〉 선집: 〈史記〉 名篇 22》, 서울: 민음사, 2014.  
 \_\_\_\_\_, 《史記本紀》, 《史記世家》, 《史記書》, 《史記表》, 《史記列傳(1)》, 《史記列傳(2)》, 서울: 민음사, 2015.  
 \_\_\_\_\_, 《史記列傳》(총 2권), 서울: 민음사, 2020.  
 김영수, 《완역 〈史記〉: 〈本紀〉(1)》, 서울: 알마, 2010.  
 \_\_\_\_\_, 《완역 〈史記〉: 〈本紀〉(2)》, 서울: 알마, 2012.  
 \_\_\_\_\_, 《완역 〈史記〉: 〈世家〉(1)》, 서울: 알마, 2014.  
 \_\_\_\_\_, 《완역 〈史記〉: 〈世家〉(2)》, 서울: 알마, 2019.  
 동양고전연구회, 《한눈에 익히는 司馬遷: 〈史記列傳〉》, 서울: 나무의꿈, 2010.  
 김하나, 《〈史記〉: 司馬遷의 인물 열전》, 성남: 팩컴북스, 2010.  
 박일봉, 《史記本紀, 史記表, 史記書》, 서울: 육문사, 2012.  
 \_\_\_\_\_, 《史記列傳》(총 2권), 서울: 육문사, 2011, 2017.  
 이상욱, 《史記列傳》(총 2권), 서울: 명문당, 2013, 2015.

- 최익순, 《史記列傳》(총 3권), 서울: 백산서당, 2014.
- 이언호, 《史記列傳》, 《史記本紀》, 서울: 학술편수관, 2014.
- 신동준, 《완역 〈史記本紀〉: 五帝부터 漢 武帝까지 제왕의 역사》,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_\_\_\_\_, 《완역 〈史記世家〉: 역대 諸侯와 功臣들의 연대기》,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_\_\_\_\_, 《완역 〈史記書〉: 고대 중국의 禮樂, 曆法, 治水, 經濟》,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_\_\_\_\_, 《완역 〈史記表〉: 역대 皇帝와 王侯將相의 연표》,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_\_\_\_\_, 《완역 〈史記列傳〉: 인물들의 흥망사》(총 2권),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 \_\_\_\_\_, 《史記本紀, 史記書》, 《史記世家》, 《史記表》, 《史記列傳(1)》, 《史記列傳(2)》, 서울: 올제, 2018.
- 홍문숙·박은교, 《史記列傳》(총 2권), 서울: 청아출판사, 2016.
- 장세후, 《史記列傳》(총 3권), 고양: 연암서가, 2017.
- 최익순, 《史記列傳》(총 3권), 강릉: 옥천출판사, 2019.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新注 史記(1): 〈五帝本紀〉》, 《新注 史記(2): 〈夏本紀〉》, 《新注 史記(3): 〈股本紀〉, 〈周本紀〉》, 《新注 史記(4): 〈秦本紀〉》, 《新注 史記(5): 〈秦始皇本紀〉》, 《新注 史記(6): 〈項羽本紀〉》, 《新注 史記(7): 〈高祖本紀〉》, 《新注 史記(8): 〈呂太后本紀〉, 〈孝文本紀〉》, 《新注 史記(9): 〈孝景本紀〉, 〈孝武本紀〉》, 서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0.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기연구실, 《新注 史記(10): 〈三代世表〉, 〈十二諸侯年表〉》, 《新注 史記(11): 〈六國年表〉, 〈秦楚之際月表〉, 〈漢興以來諸侯王年表〉》, 《新注 史記(12): 〈高祖功臣侯者年表〉, 〈惠景間侯者年表〉》, 《新注 史記(13): 〈建元以來侯者年表〉, 〈建元以來王子侯者年表〉,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新注 史記(14): 〈禮書〉, 〈樂書〉》, 《新注 史記(15): 〈律書〉, 〈曆書〉, 〈天官書〉》, 《新注 史記(16): 〈封禪書〉, 〈河渠書〉, 〈平準書〉》, 서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2021.

## 2. 學術 研究書

1982년 역사학자 홍순창이 지은 《〈史記〉의 世界》를 영남대학교출판부(대구)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국내에서 처음 출판된 사마천과 《사기》 관련 학술 개론서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마천의 생애, 《사기》의 시대, 《사기》의 집필 과정, 《사기》의 체제와 내용 등이다.

이어서 역사학자 이성규가 편역한 《〈史記〉: 中國 古代社會의 形成》을 서울대학교출판부(서울)에서 출판(1987)하였다. 이 책은 먼저 《사기》 29편을 번역하여 실었고, 《〈사기〉 해설》에서 《사기》의 저술 동기와 목적, 사료의 비판과 취사, 체제와 서술상의 특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논술했다. 20년 후 이 책의 수정판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2007)하였다.

이듬해 박혜숙이 편역한 《司馬遷의 歷史認識》을 한길출판사(서울)에서 출판(1988)하였다. 이 책은 중국 논문 4편과 프랑스 연구서(원본: 일본어 번역본)의 일부 내용, 그리고 미국 연구서 1권을 편역한 사마천과 《사기》의 국외 文·史·哲 방면의 일부 연구성과를 소개한 학술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중국 논문 4편은 殷孟倫의 〈略談司馬遷現實主義的寫作態度〉<sup>3)</sup>, 侯外廬(主編)의 〈司馬遷的思想及其史學〉<sup>4)</sup>, 任繼愈의 〈司馬遷的唯物主義思想及其進步的社會歷史觀〉<sup>5)</sup>, 蘇仲翔의 〈試論司馬遷的散文風格〉<sup>6)</sup>이다. 프랑스 연구서는 일찍이 Édouard Chavannes(沙畹)이 지은 Les Mémoires historiques de Se-ma Ts'ien(司馬遷의 역사서술)인데, 〈序論〉 중의 제3장 제2절 〈사마천이 활용한 자료〉를 이 책의 일본어 번역본인 《司馬遷과 史記》<sup>7)</sup>를 원본으로 해서 중역하였다. 미국 연구서는 Burton Watson이 지은 Ssu-ma Ch'ien: Grand Historian of China(위대한

3) 《文史哲》(山東大學) 1955年 第2期.

4) 《中國思想通史》 第2卷 第4章, 北京: 人民出版社, 1957.

5) 《中國哲學史》 第2卷 第7章, 北京: 人民出版社, 1974.

6) 《文學遺產增刊》(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 1956年 第4期.

7) 岩村忍 譯, 《司馬遷と史記》, 東京: 新潮社, 1974.

역사가 司馬遷<sup>8)</sup>이다.

2004년에는 일본의 저명 중국사 연구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지은 《〈史記〉를 말하다》<sup>9)</sup>를 이경덕이 번역한 《자유인 司馬遷과 〈史記〉의 세계》를 다른세상(서울)에서 출판하였다.

이듬해 중문학자 이인호가 지은 《〈史記〉: 중국을 읽는 첫 번째 코드》를 살림(서울)에서 출판(2005)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사기》의 시대, 저자 사마천의 생애와 사상, 《사기》 일부 번역, 《사기》 관련 참고 문헌 목록 및 사마천 연보 등이다. 이인호는 또 《〈史記〉 이야기: 역사의 시대, 인간의 시대, 살아 숨 쉬는 인간들의 대서사시》를 천지인(서울)에서 출판(2007)하였다. 이 책은 제왕을 기록한 12 本紀, 연대기에 해당하는 10 表, 각종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록한 8 書, 제후를 기록한 30 世家, 각 분야의 비범한 인재들을 기록한 70 列傳, 총 130편으로 구성된 《사기》를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어 주요 등장인물 100여 명을 몇 개 범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재구성하였다. 2년 후 이인호는 중국 저명 《사기》 연구가 韓兆琦(北京師範大學 교수)의 《〈史記〉新讀》<sup>10)</sup>을 번역한 《〈史記〉 교양 강의: 司馬遷의 탁월한 통찰을 오늘의 시각으로 읽는다》를 돌베개출판사(서울)에서 출판(2009)하였다. 이 책은 中國史記研究會 명예회장인 韓兆琦 교수가 Beijing TV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史記》講義’(원 프로그램명: 中華文明大講堂)의 방송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엮은 원서를 번역한 것이다.

2007년에는 필자가 역주한 《〈史記〉精選》을 계명대학교출판부(대구)에서 ‘대학교양총서’로 출판하였다. 이 책의 전반부는 〈項羽本紀〉, 〈孔子世家〉, 〈留侯世家〉, 〈伯夷列傳〉, 〈伍子胥列傳〉, 〈孟嘗君列傳〉, 〈屈原賈生列傳〉, 〈刺客列傳〉 총 8편의 번역문과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후반부 〈해설〉에서는 사마천의 생애와 사상, 《사기》의 편찬과 成書 과정 및 체제, 《사기》 전서의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권말에

8)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8.

9) 《史記を語る》, 東京: 岩波新書, 1979.

10) 韓兆琦, 《〈史記〉新讀》,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7.

는 부록으로 〈사마천과 《사기》 관련 중요 사건 연보〉와 《사기》의 역사 시기에 해당하는 〈西周-春秋-戰國-秦-西漢 時期 全圖〉가 있다.

이 밖에도 필자가 추가로 조사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일정 수준의 학술성을 띤 《사기》 연구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소준섭, 《司馬遷 경제학》, 과주: 서해문집, 2011.
- 이종미 역, 《圖說天下 〈史記〉》, 서울: 시그마북스, 2011.
- 모리야 히로시(守屋洋) 저, 김아정 역, 《〈史記〉, 성공의 원칙을 말하다》,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 모리야 히로시(守屋洋) 저, 문병항 역, 《미처 읽지 못한 분을 위한 〈史記〉 강의》, 서울: 오늘, 2017.
- 정조 엮음, 노만수 옮김, 《〈史記英選〉: 정조대왕이 가려 뽑은 〈史記〉의 백미》, 서울: 일빛, 2012.
- 季鎮淮 저, 김이식·박정숙 역, 《司馬遷 평전》, 과주: 글항아리, 2012.
- 김이식 편저, 《司馬遷과 〈史記〉論》, 대구: 중문출판사, 2015.
- 楊乾坤 저, 장세후 역, 《司馬遷과 〈史記〉》, 고양: 연암서가, 2015.
- 張大可 저, 장세후 역, 《司馬遷 평전》, 고양: 연암서가, 2023. (신간)
- 公孫策 저, 양중석 옮김, 《〈史記〉 명문장 100구: 성공과 실패의 세상사 들여다보기》, 서울: 눌민, 2015.
- 이해원, 《司馬遷 〈史記〉 명언 명구: 本紀》, 서울: 글로벌콘텐츠, 2020.
- \_\_\_\_\_, 《司馬遷 〈史記〉 명언 명구: 世家》, 서울: 글로벌콘텐츠, 2020.
- 최경열, 《기록자의 윤리, 역사의 마음을 생각하다: 문학으로서의 〈史記〉 읽기》, 서울: 북드라망, 2020.
- 김원중, 《〈史記〉 어록: 인간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문장들》, 서울: 민음사, 2020.
- \_\_\_\_\_, 《〈史記〉란 무엇인가: 인간과 권력, 인간학의 고전 〈史記列傳〉》, 서울: 민음사, 2021.
- 고광민, 《〈史記〉에 시비 걸기: 司馬遷의 〈史記列傳〉에 댓글을 달아 시시비비를 가리다》,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22.

## 3. 一般 教養書

1990년대부터 국내에는 일반 성인 독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교양서가 많이 출판되었다. 이형기가 지은 《현대인이 읽는 〈史記〉》를 서당출판사(서울)에서 출판(1991)하였고, 일본의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이 지은 《司馬遷: 〈史記〉의 世界》<sup>11)</sup>를 이시현이 번역한 《司馬遷과 함께 하는 역사여행: 〈史記〉의 世界》를 하나미디어(서울)에서 출판(1993)하였다. 이어서 가이즈카 시게키(貝塚茂樹)가 편역한 《史記》<sup>12)</sup>를 박재우가 번역한 《에세이 〈史記〉: 봉황이 어찌 참새의 뜻을 알리오》를 세계인(서울)에서 출판(1996)하였으며, 하야시다 신노스케(林田慎之助)가 지은 《司馬遷》<sup>13)</sup>을 심경호가 번역한 《인간 司馬遷》을 도서출판강(서울)에서 출판(1997)하였다. 이듬해 엄광용이 편역한 《인물로 읽는 〈史記〉》(총 3권)를 새로운사람들(서울)에서 출판(1998)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이 지은 《司馬遷: 〈史記〉의 世界》를 이동혁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번역한 《司馬遷: 〈史記〉의 世界》를 일각서림(인천)에서 출판(2000)하였다. 또한 가이즈카 시게키(貝塚茂樹)가 편역한 《史記》를 이동혁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번역하여 일각서림(인천)에서 출판(2002)하였다.

이어서 《司馬遷과 그의 時代》<sup>14)</sup>를 쓴 일본의 저명 《사기》 연구가 후지타 가쓰히사(藤田勝久)가 지은 《司馬遷의 旅行》<sup>15)</sup>을 주혜란이 번역한 《〈史記〉를 탄생시킨 司馬遷의 여행》을 이른아침(서울)에서 출판(2004)하였고, 고은수가 풀어쓴 《〈史記〉: 역사와 삶의 철학이 만나는 살아 있는 기록》을 풀빛(서울)에서 출판(2006)하였다.

11) 《司馬遷: 史記の世界》, 東京: 文藝春秋新社, 1959(初版). 東京: 講談社, 1972.

12) 《史記》, 東京: 中央公論新社(中公新書), 1982.

13) 《司馬遷: 起死回生を期す》, 東京: 集英社(文庫), 1984.

14) 《司馬遷とその時代》, 東京: 東京大學出版會(東洋叢書), 2001.

15) 《司馬遷の旅: 〈史記〉の古跡をたどる》, 東京: 中央公論新社(中公新書), 2003.

이 밖에도 필자가 추가로 조사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사기》 일반 교양서의 목록(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 제외)은 다음과 같다.

- 무라야마 마코토(村山亨) 외 엮음, MOIM 옮김, 《〈史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백과사전》, 과주: 서해문집, 2010.
- 이수광 편저, 이도현 그림, 《꿈꾸는 20대 〈史記〉에 길을 묻다》, 과주: 추수밭, 2010.
- 장석만, 《〈史記〉에서 뽑은 영웅들의 출세학》, 서울: 사사연, 2010.
- 김영수, 《司馬遷 인간의 길을 묻다》, 서울: 왕의서재, 2010.
- \_\_\_\_\_, 《司馬遷과의 대화》, 서울: 새녘, 2013.
- \_\_\_\_\_, 《나를 세우는 옛 문장들: 언어의 소금 〈史記〉 속에서 길어 올린 천금 같은 삶의 지혜》, 서울: 생각연구소, 2013.
- \_\_\_\_\_, 《〈史記〉를 읽다: 중국과 司馬遷을 공부하는 법》, 서울: 유유, 2014.
- \_\_\_\_\_, 《司馬遷과 〈史記〉에 대한 모든 것(1): 사마천, 삶이 역사가 되다》, 서울: 창해, 2016.
- \_\_\_\_\_, 《〈史記〉를 읽다, 쓰다: 3천 년을 내려온 춘철살인의 명언 명구》,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6.
- \_\_\_\_\_, 《절대 역사서 〈史記〉》, 서울: 창해, 2016.
- \_\_\_\_\_, 《나는 〈史記〉로 경영을 배웠다》, 서울: 메이트북스, 2019.
- \_\_\_\_\_, 《司馬遷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완주: 아이필드, 2020.
- \_\_\_\_\_, 《司馬遷, 정치와 권력을 말하다》, 서울: 북바이북, 2021.
- \_\_\_\_\_, 《司馬遷 다이어리 366》, 서울: 창해, 2021.
- \_\_\_\_\_, 《인간의 길: 나를 바로 세우는 司馬遷의 문장들》, 서울: 창해, 2021.
- 王壽波 저, 한정선 역, 《〈史記〉 백과사전: 명언으로 만나는 〈史記〉 백서》, 서울: 휘닉스드림, 2011.
- 王壽波 저, 한정선 역, 《〈史記〉 인문학: 명언으로 읽는 고전의 즐거움》, 서울: 휘닉스드림, 2013.
- 홍문숙·박은교 엮음, 《인생 공부가 되는 중국 오천 년의 지혜: 〈史記列傳〉》, 서울: 청아출판사, 2011.

- 신장용 편저, 《司馬遷, 인간 경영의 숲을 거닐다》, 서울: 일송북, 2011.
- 劉琦 편저, 김인지 역, 《그림으로 읽는 〈史記〉》, 광주: 봄풀, 2012.
- 신동준, 《司馬遷의 부자 경제학: 〈史記·貨殖列傳〉》,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2.
- \_\_\_\_\_,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劉邦의 참모들을 바라보는 〈史記〉의 시선》, 고양: 역사의아침, 2016.
- 원재훈, 《남자의 인생: 〈史記列傳〉에서 배우는 똑똑한 인생 전략》, 서울: 학고재, 2012.
- 김원중, 《〈史記〉 성공학: 司馬遷에게 배우는 인생 경영 비법》, 서울: 민음사, 2012.
- 소준섭, 《〈史記〉 근본을 들여다보다》, 대전: 나라아이넷, 2013.
- \_\_\_\_\_, 《司馬遷 〈史記〉 56: 本紀, 世家, 列傳, 書의 명편들》, 광주: 현대지성, 2016.
- 박성연 엮음, 《한 권으로 읽는 〈史記列傳〉》, 서울: 아이템북스, 2014.
- 김도훈 역, 《한 권으로 읽는 〈史記〉: 궁형을 무릅쓰고 저술한 불후의 중국 역사》, 서울: 아이템북스, 2014.
- 고태성 저, 송향룡·이기동 감수, 《How so? 司馬遷 〈史記〉(1)》, 《How so? 司馬遷 〈史記〉(2)》, 《How so? 司馬遷 〈史記〉(3)》, 서울: 한국헤르만헤세, 2014.
- 장개충, 《한 권으로 읽는 중국 고전: 司馬遷 〈史記〉》, 서울: 너도밤나무, 2014.
- \_\_\_\_\_, 《한눈에 익히는 司馬遷 〈史記列傳〉: 삶의 지혜가 담긴 중국 고전 열전》, 서울: 한림학사, 2015.
- 시마자키 스스무(島崎筍) 저, 전형배 역, 김영수 감수, 《단숨에 읽는 〈史記〉: 사기 속 3천 년 역사를 한 권에 담다》, 서울: 창해, 2014.
- 나은영 번역, 고미숙 기획, 《낭송 〈史記列傳〉》, 서울: 북드라망, 2015.
- 김치영, 《〈史記列傳〉(上): 고전에서 배우는 지략과 처세》, 《〈史記列傳〉(下): 고전에서 배우는 지략과 처세》, 서울: 마인드북스, 2015.
- 중국고전연구회 편저, 《〈史記〉, 臥薪嘗膽을 논하다》, 《〈史記〉, 指鹿爲馬를 논하다》, 《〈史記〉, 各自圖生을 논하다》, 서울: 북에디션, 2015.
- 조장연, 《〈史記列傳〉: 청고고아한 문자의 향기를 찾아서》, 서울: 삼양미디어, 2016.
- 방민수, 《司馬遷 스캔하기: 철학 하는 외교관이 자녀와 함께 읽는 중국 이야기》, 서울: 책과나무, 2017.
- 張嘉驊 저, 전수정 역, 《장자화의 〈史記〉(1): 큰 그릇이 된다는 것》, 광주: 사계

- 절, 2017.
- 張嘉驊 저, 전수정 역, 《장자화의 〈史記〉(2):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파주: 사계절, 2017.
- 張嘉驊 저, 전수정 역, 《장자화의 〈史記〉(3): 세 치 혀로 세상을 바꾸다》, 파주: 사계절, 2018.
- 張嘉驊 저, 전수정 역, 《장자화의 〈史記〉(4): 비상시국에 살아남는 법》, 파주: 사계절, 2018.
- 張嘉驊 저, 전수정 역, 《장자화의 〈史記〉(5): 역사에 이름을 새기다》, 파주: 사계절, 2018.
- 김원중 편역, 《새로운 세대를 위한 〈史記〉》, 서울: 휴머니스트, 2017.
- 고은수 역, 《〈史記〉: 역사와 삶의 철학이 만나는 살아 있는 기록》, 서울: 풀빛, 2017.
- 이양호 저, 《秦始皇을 겁쟁이로 만든 단 한 사람: 〈史記列傳〉 단단히 읽기》, 서울: 평사리, 2018.
- 한정주, 《〈史記〉 인문학: 3천 년 역사에서 찾은 司馬遷의 인간학 수업》, 파주: 다산초당, 2018.
- 이승수, 《司馬遷의 마음으로 읽는 〈史記〉》, 파주: 돌베개, 2018.
- 이언호, 《하룻밤에 읽는 〈史記列傳〉: 동시대 소설 최고의 걸작, 대륙의 제왕을 꿈꾼 영웅호걸》, 서울: 모든북, 2019.
- \_\_\_\_\_, 《〈史記本紀〉: 제왕들의 세계》, 서울: 모든북, 2020.
- 이석연, 《司馬遷 〈史記〉 산책》, 파주: 범우사, 2020.
- 강남주 엮음, 《司馬遷의 〈史記〉 속의 秦始皇: 진시황의 貪·瞋·癡》, 서울: 행복에너지, 2021.
- 이덕일, 《〈史記〉, 2천 년의 비밀: 司馬遷이 만든 중국사》, 서울: 만권당, 2022.

### Ⅲ. 맺음말

2,100여 년 전 중국에서 편찬된 《사기》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누가 처음 이 책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왔는지, 현재 전하는 한

중 양국의 역사 문헌에서 이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관련 학계의 조사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역사 문헌에 기록된 중국 서적의 고대 한국 전파 정황에 근거하면, 《사기》의 한국 전래 시기가 중국의 東晉(317~420) 시기, 즉 한국의 高句麗 시기보다는 늦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고구려 小獸林王 2년(372) 중앙에 太學(大學)을 설립하여 자제를 교육했다.”<sup>16)</sup>는 기록이 있다. 태학은 儒家 經典을 傳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전문적으로 왕족과 귀족 자제를 교육하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이다. 태학에서는 ‘五經’을 대표로 하는 유가 경전 이외에도 ‘三史’(《史記》·《漢書》·《東觀漢記》)를 강의하고 전수하였다. 또 《舊唐書·東夷·高麗傳》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여 각 지방에 둔 사학 기관인 局堂에서 평민층의 자제들에게 주야로 경학·문학·무예 등을 가르쳤는데, 그 강의 교재가 ‘五經’과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晉春秋》(《晉陽秋》)·《玉篇》·《字統》·《字林》 및 《文選》(《昭明文選》)<sup>17)</sup>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이로써 고구려 시기에 《사기》는 이미 국내로 들어와서 당시 지식층과 왕공 귀족들에게 상당히 넓고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高麗 시기에는 《사기》 목판본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朝鮮 世宗 연간(1425)에는 조정에서 만든 활자로 《사기》를 인쇄하여 문신들에게 증정하였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당대 일류 문장가로 인정받아 중국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 가서 明代 문인 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했던 崔岾(1539~1612)이 편찬한 《漢史列傳抄》가 출간되었고, 1612년에는 車天輅(1556~1615)가 刪定한 《史纂抄選》과 《史纂全

16)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立大學, 教育子弟.”

17) 《舊唐書·東夷·高麗傳》 卷199: “俗愛書籍, 至於衡門廝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選》이 출간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명대 凌稚隆이 校點한 《史記評林》과 《增訂史記纂》 및 편찬자를 알 수 없는 《史漢一統》<sup>18)</sup>도 연이어 출간되었다. 그중에서 《사기》 전문이 들어있는 《사기평림》은 당시 문인들이 《사기》를 연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正祖가 편찬한 《史記英選》 목판본이 여러 차례 발간되었는데, 이로부터 《사기》가 국내 지식층에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현대에 와서, 특히 1971년부터 2022년까지 5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사기》 원전 번역서와 학술 연구서 및 일반 교양서의 전체 수량과 내용 면에서 볼 때, 국내 학자들이 이룩한 다양한 연구성과는 《사기》의 국내 전파와 보급 및 대중화에도 적극적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국내 《사기》 관련 전체 출판물은 총 172종이며, 그중 원문 번역서는 75종(43%), 일반 성인 독자 대상 서적은 51종(30%), 어린이 대상은 36종(21%), 청소년 대상은 10종(6%)으로 나타났다.<sup>19)</sup>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적을 제외하면 원문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의 학술성을 띤 연구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개론서나 특정 주제 중심의 일반 교양서가 다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학술 연구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일반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가독성이 높은 학술 연구서가 지속해서 출판되기를 바란다. 또한, 활자화된 책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대중화에 발맞춰 다양한 독자층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음성이나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연구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8) 《史記》와 《漢書》 중에서 ‘列傳’ 부분을 抄錄한 목판본 16권 16책이다. 편찬자와 간행 연도는 미상이나 학계에서 조선 선조 때의 문장가 崔崧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 고헤민, <<史記>> 대중화의 현황과 전망: 《史記》 관련 출판물을 중심으로, 《中國散文研究集刊》(한국중국산문학회) 제13집, 2022.

